

# 올 하반기 '콜 버스' DRT 체계 도입되나

## ■'버스 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 설명회 시내급행버스 도입·읍면지역 DRT 시범운영안 제시

제주도가 읍면지역 교통 편의를 위해 이용객이 호출해 버스를 탑승하는 방식의 'DRT' 체계를 도입한다는 용역안을 제시한 가운데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버스 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을 재개, 개선방안을 마련해 권역별 도민 설명회를 지난 17일 제주시 농어업인회관에서 개최했다.

용역의 핵심은 연간 1000억원이 소요되는 버스준공영제 보조금을 절감하고 노선 효율을 높여 이용객 만족도를 높여겠다는 것이다.

용역의 핵심 결과물로 제시된 대안은 교통량이 집중되는 도심지에 '시내급행버스'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시내급행버스는 올 상반기 당장 운영을 목표로 한다.

DRT는 올해 하반기부터 3개월간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는 구상이다. DRT는 기존 버스와 같이

정해진 시간이 아닌 이용객이 예약한 시간, 예약한 곳에 버스가 찾아와 운행하는 방식의 교통체계다.

용역진이 제시한 DRT 단계별 도입 방안을 보면, 올해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와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에 각각 4대씩 시범운행을 우선 진행한다. 이어 읍면순환 버스 총 55개 노선을 도입하고, 양 행정시 지선버스에 DRT 노선을 전면 도입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올해 시범운행을 위한 플랫폼과 콜센터 운영계획도 수립한다.

보조금 절감을 위해 관광지 순환 버스는 폐지하거나 준공영제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관광지 순환버스는 현재 13개 노선·16대가 운행 중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용역진 제시한 DRT 버스 도입을 내놨지만 제주 여건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버스 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을 재개, 개선방안을 마련해 권역별 도민 설명회를 지난 17일 제주시 농어업인회관에서 개최했다.

도내 공영버스 관계자는 "시범운영 지역인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에선 용역안에 제시된 DRT 노선으로 현재 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현재 버스 4대가 운행 중"이며 "DRT는 콜 개념인데, 시간대별로 콜을 한다고 하면 차량 대수 4대로 소화할 수 있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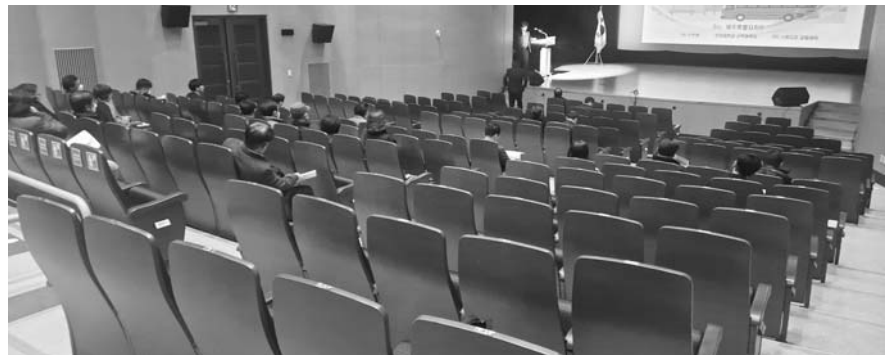
오봉식 제주시 교통행정과장은 "DRT는 사실상 제주도 여건에 맞지 않는다"며 "사실상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 분들은 행복택시를 이용하고 있다.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콜센터 운영 시 인력 채용 등 경영비가 늘어나면 이 연구용역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용역진은 "기존 버스 대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운행 중인 버스를 최대한 활용해 공차를 줄이고 콜이 들어오면 운행하는 방식"이라며 "다만 등교시간 등 특정 시간대 등 중요 시간대에는 현재와 똑같이 운영된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것"이라고 답했다.

# 홍보 부족·일방통행식 교통정책에 '발끈'

## 버스 준공영제 도민설명회 2회차에도 참석자 30명 고작



17일 서귀포예술의전당에서 서귀포시민을 대상으로 열린 제주도의 '버스 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에 따른 도민설명회장이 홍보 부족 등의 이유로 텅 비어 있다.

낙달만에 다시 열린 서귀포시민 대상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의 개선방안 용역에 따른 도민설명회가 또다시 홍보 부족 등으로 참석자들이 저조하며 '공회전'을 거듭했다. 또한 버스 노선 통·폐합과

급행·리무진 버스 장거리 노선 요금 인상 등의 결정에 대한 주민과의 교감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교통정책에 대한 강한 불만이 쏟아졌다.

제주도가 17일 서귀포예술의전

당에서 "버스 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에 따른 도민설명회를 개최했으나 참석자는 관계 공무원을 포함해 30여명에 불과했다. 지난해 10월 5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첫 도민설명회에서 공무원과 용역진, 취재원 등을 포함해 10여명 뿐이었고 이번에도 달라진 모습은 없었다. 설명회의 질의 응답시간도 시민 불만이 빗발치자, 20분 만에 끝내며 도는 설명회를 서둘러 마치려는 모습을 보였다.

참석한 서귀포시민들은 홍보 부족과 일방통행식 교통정책 결정에 따른 강한 불만을 표실했다.

서흥동 주민 A씨는 "어제(16일) 저녁에야 도민설명회가 열린다는 것을 알았고, 오늘(17일) 도청과 도의회, 동주민센터 3곳에

전화로 했는데 모두 행사 준비로 출장 중이라는 말만 들었다"며 "항상 전화를 하면 담당자는 없고, 들을 수 있는 답변 역시 없었다"고 지적했다.

주민 B씨도 "제가 마을 통장인데도 도민설명회 개최를 직접 행정에서 듣지 못했다"며 "통장도 모르는데 말이 되느냐, 주민과의 연결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고 반문했다.

주민 C씨는 "이번 설명회의 내용들이 확정된 교통정책들을 알리고 받아들이라는 것인가?"라며 "교통복지 개선 내용은 전혀 없고, 도민 불편을 자조하며 예산 절감을 위한, 행정 잘못을 도민에게 전가하려는 도의 믿어볼이식 교통정책은 안 된다"고 비판했다. "수익이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국민 불편이 있다면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개선하는 것이 행정 아니냐"고 비토했다.

# 정부 중국발 입국자 방역조치 완화

## 제주 관광산업 회복 기대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완화한 데 대해 제주도가 관광산업 회복을 기대하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중국에 대한 코로나19 위험도 평가 결과, △확진자 및 사망자 감소 △중국발 입국자의 양성률 감소 △우려할 만한 신규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역조치를 완화하기로 지난 17일 결정했다.

제주도와 관광업계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정부의 방역 완화 결정에 적극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제주도는 조만간 중국발 항공기의 인천공항 일원화 조치가 해제될 전망이다이라며, 그동안 중단됐던 제주-중국 시안 노선과 홍콩 직항노선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 11일부터 중국

행 단기비자 발급을 재개했으며, 중국 정부도 18일자로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중지한다.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하는 입국 전후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의무화 조치도 다음 달부터 해제될 전망이다.

그간 제주도는 중국 관광객 감소로 도내 관광산업에 심각한 타격이 이어짐에 따라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역조치를 완화해달라고 건의해왔다. 특히 오 지사가 직접 주한중국대사관을 찾아 면담을 통해 제주와 중국 간 관광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오영훈 지사는 "이번 방역조치 완화를 계기로 청정제주 관광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제주관광의 경쟁력을 확보해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강다혜기자 dhkang@halla.com

# 서귀포시 수산물 질병예방 백신 공급

서귀포시는 어류질병 사전 예방 및 항생제 등 약품사용 절감을 통한 건강하고 안전한 양식수산물 생산을 위해 지난해 대비 6억원 증액 확보한 예산 3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에 시는 지난 1월 사업자 모집 공고를 통해 양식어업 허가를 받고 방역교육을 이수한 어류양식장 191개소를 선정했다. 양식장 수면적당 모르는데 말이 되느냐, 주민과의 연결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고 반문했다.

# 도교육청 '장애유아 치료 카드' 지원

제주도교육청은 오는 3월부터 장애유아의 재활을 돕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장애유아 치료 카드'를 지원한다.

장애유아 치료 카드는 장애유아 재활치료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유치원이 아닌 도내 가정,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에서 생활하고

가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강도다리인 경우 낚시에 비해 사육밀도가 높아 전량 강도다리를 사육하는 어가를 대상으로는 낚시 사육어가 대비 지원한도를 최대 50% 상향해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 사업은 어류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 질병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어류 폐사량 저감 및 안전한 어류 생산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백신 접종 후 약 4-6개월간 항생제 사용을 줄일 수 있어 경제적 효과가 높아 양식 어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백귀기자

**진정한 제주축의 보약**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미늘·더덕 씹음병, 균핵병 예방

오래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연작장애 토양 속독 살균

방이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강력한 라임효과 높은 저항성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뿌리혹병의 경감

YouTube **석회질소** 검색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

**최신 감귤 묘목 생산 전문업체** 국내육성

전망 좋은 신종품 감귤 만감류등 각종묘목을 선별하여 최상의 상품을 공급해 드립니다.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

- 윈터프린스: 차별화된 맛과 향, 껍질 벗기기가 쉬워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만감류. 연내수확 가능한 만감류 과일시장의 새로운강자!
- 탐나는봉: 미국에도 2019년 식물특허 등록원료 색상이 진하고 당함량이 높고 식감이 우수. 기존 한라봉(부자호)보다 우수성을 인정받은 우리 품종.
- 사라향: 껍질 표면이 매끈하면서 두께가 얇으며 기존 천혜향보다 과육 밀도가 높으며, 2월 중후반 성숙하며 과실이 풍부하면서 고유의 향기가 있음.
- 하례조생: 조숙 온주밀감으로 기존 공천조생보다 같은 시기 당도는 높고 산함량은 낮아 11월 고품질 감귤을 생산 출하할 수 있는 품종.
- 제라몬: 함량 및 높이 향기가 진한 레몬 품종 내한성이상대적으로 강한 절로 핑키라는 품종.
- 미니향: 소과형(30g내외) 감귤로 당도가 매우 높으며, 기존 품종과는 차별화된 고품질 품종.

**과수농가 보급품종(1.3년생)**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유라조생, 공천, 흥진, 키라향, 산화향(흰색 감귤)

**가정원예(조경수) (2-7년생)** 허균, 팔삭, 세미늘, 금귤, 당유자, 아미나스, 미니몬, 국내산 행사묘목 판매 (신규 2022-2023)

❖ 제주한라농원 감귤류묘목 전시판매장 개장! ❖ 사전예약 주문생산

제주한라농원은 (사)한국과수종묘협회 우수업체이며, 우수신품종을 농촌진흥청 국유품종보호(통상실시권)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판매하는 중요전문업체입니다.

**제주한라농원** | 010-4736-2479 / 010-6500-2329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리999번길1(수산리735)